

행동하는 믿음 Ⅷ

염려로 인한 불면의 시대! 임재의 장소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4:35-41]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1. 예수님이 주무시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큰 광풍이 일어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성경은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광풍이라 말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배가 침몰 직전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광풍이 일어나 내 인생의 보트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들과 우리들은 아마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너무 대조적인 상황이다. 만약 이 장면이 영화라면 감독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큰 광풍이 일어난 상황이다. 이 위기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음 직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감독이 이 장면을 연출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잠에 그 비밀이 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이다.

[시편 127: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임재는 평안, 평강과 같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이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없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불면의 시대이다. 수면은 '안식'을 말한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마찬가지이다.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안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염려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염려는 반드시 절망으로 이어진다.

2.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깊은 수면을 취하고 계셨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폭풍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자는 것이다. 그 예가 '어린 아기'이다. 어린 아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이다. 그 아이에게 큰 집, 작은 집은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의 품이다. 아이가 잘 수 있는 장소는 '엄마 품'이다. 엄마 품이 안정감이다. 엄마 품에 있으면 전쟁 속에서도 아이는 곤히 잠을 잘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광풍이 일어나는 배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장소에 계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11:6).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도 살롬의 평강을 잃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엄마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그 임재 안에 모든 것은 잠잠하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통치안에 있다. 그 상태를 '임재'라 한다.

3. 큰 풍랑이 주는 메시지 - 믿음

우리는 예수님께 반문한다. "내 문제의 파도 속에 당신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를 삼키려는 문제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의 파도 바깥이 아니라, 그 문제의 파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1) 예수님은 문제의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2) 예수님은 그 문제의 파도 속에서 평안히 주무신다.

예수님의 잠은 임재와 같다. 어떤 외부의 폭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임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3)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신다.

‘꾸짖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하신다. 무슨 말인가? 파도를 꾸짖었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 일으킨 문제의 파도를 향해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선과 악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4: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내 자녀에게 네가 일으킨 파도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멈추어라. 떠나라.’

귀신이 예수님의 꾸짖음 때문에 떠난 것처럼, 그 파도는 금세 잠잠해졌다. 무슨 말인가?

4.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능력이 비밀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임재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의 비밀이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임재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온다.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의 평강이 위기의 풍랑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5. 임재로부터 오는 믿음 - 두려움이 아닌 믿음

[마가복음 4: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의 정체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신다. 제자들을 깨워 내시는 것이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그들이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도 속에서 연습해야 한다. 파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그 임재 때문에 잠을 자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일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임재의 장소이며, 그 장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실재가 된다.

6.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 하나님이 폭풍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분

폭풍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폭풍을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우연은 없다. 내 삶에 일어나는 폭풍 또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삶에 폭풍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폭풍이 일어날 때 당황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임재를 평강으로,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말인가?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다) 너도 나처럼 폭풍우를 믿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4:4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내가 누구인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권세를 발견하는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그분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폭풍 속에서도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7. 시작도, 풍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마가복음 4: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 4:35절을 보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강 건너로 가자고 말씀하신다. 내 인생의 목적지로 가자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과 연결된 마지막 결과를 보라. 그들은 강 건너에 도착했다. 이 사실이 놀랍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께 나의 신뢰를 두는 것이다.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신하자.